

페미니즘 분야 국제학술 논문이 인용한 유튜브 인용문헌 표기의 적절성 평가연구

An Evaluation Study of YouTube References Cited in Feminism Journals

박윤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parkcine@sookmyung.ac.kr
이춘실,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cslee@sookmyung.ac.kr
Yun Shin, Park,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oon Shil Le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 3월까지 Scopus에서 페미니즘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논문 37편과 이 논문들이 인용한 유튜브 55개를 대상으로 학술논문들이 유튜브를 인용할 때 활용하는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참고문헌으로서 유튜브의 표기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도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유튜브는 0.34%의 인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접속오류는 55개중 6개(10.9%)이며, 참고문헌으로서 유튜브의 표기가 부적합하게 기재된 경우는 38개(69.1%)였다. 그 원인으로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은 저자의 노력 부족과 인용된 유튜브가 학술정보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1. 서론

온라인 동영상(online videos)은 공개할 수 있는 지원교육프로그램(educational and outreach programmes)이자 학술적인 소통 도구로서, 연구자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Pasquali 2007), 이런 온라인 동영상으로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유튜브이다. 유튜브는 학술논문 내에 인용되는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Kousha et al. 2012), 그중에서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페미니즘 분야에서 유튜브의 인용이 활발하다. 이는 페미니즘이 용어의 특성상 편견과 오해가 많은 분야(Pickett 2013)로서 유튜브가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튜브는 온라인 자원으로서,

등록과 삭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학술논문의 인용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며, 이와 더불어 참고문헌으로서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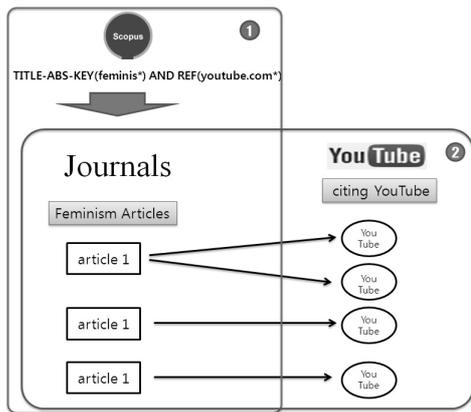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학술논문들이 유튜브를 인용할 때 활용하는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참고문헌으로서 유튜브의 표기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튜브가 서비스를 시작한 년도인 2005년부터 2013년 3월까지 URL 참고문헌 검색이 가능한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페미니즘 분야 논문이 인용한 유튜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키워드는 'feminism',

‘feminist’를 포함하는 ‘feminis*’로 정하였고, 이 키워드를 제목, 초록, 저자 색인필드인 ‘TITLE-ABS-KEY(feminis*)’로 한정하였으며, Scopus의 참고문헌(References) 필드에는 ‘youtube.com*’을 입력하였다. 검색결과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데이터인지 일일이 클렌징 작업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인 논문 37편, 논문 37편이 인용한 유튜브 55개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논문 37편의 원문을 확보하였다.



<그림 1> 연구방법 Conceptual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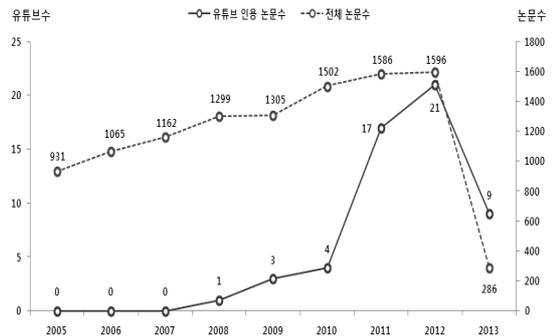
원문에 기재된 유튜브 참고문헌을 통하여 유튜브 접속오류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투고규정에서 제시한 유튜브 스타일매뉴얼과 비교하여 유튜브 참고문헌 표기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3. 분석결과

3.1 연도별 페미니즘 분야 논문수와 유튜브를 인용한 논문수

유튜브가 서비스를 시작한 2005년 이후로 페미니즘을 Title, Abstract, Author Keyword를 키워드로 제한한 논문은 총 1,732편이었다. 유튜브를 인용한 논문 수

는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08년에 1개가 인용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21개가 인용되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1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은 본 연구를 위하여 검색한 날짜가 2013년 3월25일임에도 불구하고 9개의 유튜브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 유튜브의 인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0.34%의 인용률을 보이므로써 유튜브의 인용이 활발하다고 나타난 예술분야(0.3%)와 사회과학분야(0.2%)(Kousha et al. 2012)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높은 인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2005년 이후 연도별 페미니즘 분야 논문수와 유튜브를 인용한 논문수

3.2 유튜브 콘텐츠 유형

페미니즘 분야 논문이 인용한 유튜브의 콘텐츠를 대상별, 주제별, 형식별, 매체별, 직업별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통계 처리한 결과, 전문 제작된 방식으로서 전문직이나 연예인인 여성이 사회나 문화현상에 대하여 인터뷰나 강연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3.3 유튜브 URL의 접속오류 유형

페미니즘 분야 논문 37편이 인용한 55개의 유튜브 중 주소(URL)의 접속오류

는 dead link가 3개, 서비스약관 위반에 의한 삭제가 3개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서비스 약관 위반사례의 원인으로 정치나 사회현상에 대한 민감한 내용의 영상이나 소유권이 있는 영상, 특정 감독의 영화로 저작권에 위반된 것이 그 이유였다.

3.4 참고문헌으로서 유튜브 표기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투고규정에서 제시한 유튜브 인용방법을 기준으로 55개의 유튜브 참고문헌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유튜브 참고문헌 중 올바른 표기는 전체 55개중 11개(20%)이고 부적합한 표기는 38개(69.1%)이다. 부적합한 표기 오류로는 년도, 등록날짜, 매체유형, 등록ID 등 단순한 미표기 오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참고문헌으로서 서지사항에 중요한 부분인 제목과 저자 표기 오류도 전체의 28.9%를 차지하였다<표 1>.

투고규정에서 유튜브 인용방법 제시부분

페미니즘 분야 논문 37편의 학술지는 총 34종이며, 투고규정 사이트에서 직접 유튜브 인용방법을 제시한 학술지는 1종이었다. 투고규정 내에서 안내한 스타일매뉴얼을 토대로 유튜브 참고문헌 인용방법

을 조사한 결과, 논문 31편(83.8%)에 해당하는 스타일매뉴얼 6개가 유튜브 참고문헌 인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표 2>. Chicago Sytle의 경우에는 2010년 제 16판부터 유튜브의 투고규정을 제시하고 있음으로, Chicago Style이면서 2009년도 이전에 발표된 논문 1편은 유튜브의 참고문헌 인용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밖에 유튜브 인용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웹인용방법을 제시한 학술지는 5편이었다. 따라서 투고규정에서는 유튜브 인용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를 안내한 스타일매뉴얼에서는 대부분이 유튜브의 인용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투고규정에서 유튜브의 참고문헌 인용방법 제시여부

스타일 매뉴얼	년도	논문수	유튜브 참고문헌 가이드	
			Yes	No
Chicago	2010	11(1)	✓	
Harvard	2010	11	✓	
APA	2009	6	✓	
MLA	2009	1	✓	
ASA	2010	1	✓	
ABNT	2010	1		웹인용제시
Maney	2011	1	✓	
CSSE	2013	1		웹인용제시
기타		3		웹인용제시
합계 (%)		37 (100)	31 (83.8)	5 (13.5)

<표 1> 스타일매뉴얼별 표기오류유형(중복포함)

스타일	저자	제목편집	년도	등록날짜	상영시간	매체유형	등록ID	영상설명	합계
Chicago		5		4	16	6	13	14	53
Harvard	4	7	1	1		7			17
APA	1	3		3		6			10
MLA						1			1
ASA		1				2			2
ABNT									0
Maney	2	2	1			2			7
CSSE									0
기타		1							0
합계 (%)	7 (7.8)	19 (21.1)	2 (2.2)	8 (8.9)	16 (17.8)	24 (26.7)	13 (14.4)	14 (15.6)	90 (100)

저자의 기재부분

부적합한 표기 요인의 대부분이 저자의 기재오류로서 유튜브 기준 55개 중 37개(97.4%)개이다. 페미니즘 분야 학술지는 유튜브의 인용방법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었으나, 투고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저자의 노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년도, 등록날짜, 상영시간, 매체유형, 등록 ID, format 등의 미표기 등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부분

학술인용으로 정보가 불충분한 유튜브가 13개로 부적합한 기재요인의 34.2%를 차지하였다. 제목표기의 경우 MLA Style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스타일매뉴얼에서는 유튜브의 제목을 ‘원문 그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목을 편집한 경우는 19개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편집의 이유로는 인용된 유튜브의 원제목이 참고문헌 표기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제목이 지나치게 길거나 혹은 짧은 경우, 그리고 특수기호 등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저자가 생략된 경우는 7개로 저자를 표기하기에 너무 많은 영상 속 인물이 나오거나, 유튜브 속에 자세한 저자 및 제작자의 정보가 없어서 생략된 경우가 다소 발견되었다.

4.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학술논문들이 유튜브를 인용할 때 활용하는 콘텐츠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참고문헌으로서 유튜브의 표기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학술인용으로 연구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유튜브는 페미니즘 분야에서 0.34%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인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인용의 문제점으로 유튜브 URL의 접속오류 유형으로는 dead link 3개, 서비스약관 위반에 의한 삭제가 3개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였다.

참고문헌으로서 유튜브 인용문헌의 부적합한 표기는 55개 중 38개(69.1%)이며, 투고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저자의 노력 부족(97.4%)이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유튜브가 학술인용으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도 부적합하게 표기한 요인(34.2%)이었다.

학술논문에서 유튜브의 인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투고규정에서는 유튜브의 인용방법을 안내하고, 스타일매뉴얼은 다양한 유튜브의 인용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저자는 투고규정에서 제시하는 스타일매뉴얼에 맞게 기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에서 유튜브를 인용할 때 어떤 종류의 유튜브가 접속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고려하고 내용적, 서지적으로 학술인용으로 적합한 유튜브의 선택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Kousha, K., Mike T., and Abdoli, M. 2012. "The Role of Online Videos in Research Communication: A Content Analysis of YouTube Videos Cited in Academic Public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3(9): 1710-1727.
- Pasquali, M. 2007. "Video in Science. Protocol Videos: Th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Society." *EMBO Reports*, 8(8): 712.
- Pickett, L. 2013. "Five Myths about Feminism." *wbez*. April. 25. Accessed March 3. <http://www.wbez.org/blogs/leah-pickett/2013-04/five-myths-about-feminism-106826>